

시론

희경루의 활용도를 높이자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 학장

중앙로에서 광주천을 지나 광주공원 근처에 이르러 아름다운 정자가 한눈에 들어온다.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희경루(喜慶樓)이다.

작년 9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중건식을 가진 희경루는 가히 그 규모와 위용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진주의 축석루(矗石樓), 평양의 부벽루(浮碧樓)와 함께 우리나라의 4대 정자라 할 만하다. 근처에 있는 광주향교를 일터로 삼고 있는 필자는 점심 후 근처를 산책하면서, 때로는 구경삼아 그곳에 들러 보기도 한다.

때때로 누각에는 엄마의 손에 끌려 온 어린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하고, 나이 지긋한 노인네들이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또한 좋은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는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진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광주의 새로운 상징으로 삼겠다는 웅대한 포부로 중건한 희경루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처럼 소풍삼아 나온 시민들의 휴식터로서만 쓰여야 되겠는가.

지난 6월 28일 광주향교와 광주유학대학에서 주최·주관하는 제2회 광주고를 향시(鄕試) 재현 행사가 향교의 유림회관에서 개최됐다.

당초에는 희경루 중건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희경루에서 개최하려 했고, 한시(漢詩)의 시제(試題)도 '경축 희경루 중건'으로 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 결국 행사는 향교의 유림회관으로 변경돼 치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을 굽어보는 적당한 높이에 위치한 희경루는 광주의 명소임에는 틀림없고, 그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시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관부서에서 희경루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희경루를 관리하는 문화담당 부서에서 희경루가 단순히 대외 전시용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어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희경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는 수준을 벗어나 희경루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등산과 광주천을 바라보는 웅장한 희경루에서 이뤄지는 '작은음악회'와 '전통춤공연'은 상상만 해보아도 흥분되는 일이 아닌가. 여기에 더해 근처에 앉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통차 한잔을 마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밖으로는 '문화수도 광주'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펴는데는 소홀해온 느낌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당국에서 좀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름아닌 문화정책

을 추진하고 전개하는데 있어서 '관주도형제도'를 '시민주도형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가 강조돼 가는 현실 속에서 모든 문화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주도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지난날처럼 위원회제도로 변경하고, 문화관련 시민단체들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희경루만 하더라도 시설관리는 문화재단 산하의 전통문화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가 아닌 활용도 제고를 위한 문화생산 작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것은 K-팝, K-푸드 등 K-컬처의 눈부신 활약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많은 부분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여타 지방도시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자조(自嘲)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기왕에 중건된 희경루를 활용한 문화진흥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끝으로 희경루의 활용도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에 위치한 광주향교와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하며, 향교 일대가 유교문화지구로 확대·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정자문화는 결국 선비문화와 직결되고, 선비문화는 유교문화와 떼어서 이야기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유의 전통문화 진흥이 결국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성군관·향교·서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각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시책들이 발굴·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社說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주민 반발 광주시 행정력 시험대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 반발로 인해 당초 6월 말 발표도 미뤄진 상태다. 1차 공모가 실패로 끝난 뒤 2차 공모다. 이마저 무산된다면 2030년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광주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예비 후보지는 서구 매월동, 북구 장동동, 광산구 삼계동 등 3곳으로 광주시는 적정성 평가 후 7월 중에는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만 만만찮다.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에 광주시는 무척 곤혹스럽다. 주민지원기금 등 총 1천억원 이상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타지의 우수시설 견학 등으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낙관적이었으나 분위기가 반전됐다.

실제로 삼계동에서는 주민 동의 50%를 충족하지 못했더니 형식적인 설명회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매월동도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도 제한으로 인해 소각장 굴뚝 높이가 45m로 매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장동동은 환경적 영향이나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공모 여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밀실 행정'이라며 불신의 벽이 높다. 현재 용역기관은 3곳을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경제적 조건 등 총 23개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항목에는 부지 공모 신청 여부, 주민 호응도 및 민원 발생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대로면 난항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1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할 계획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 2029년 완공, 2030년엔 가동해야 하는 일정이다. 더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관 의미와 과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광주에서 공식 개관했다.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들어선 본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부도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4·3의 상처를 보듬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센터도 동시에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제정 및 센터 설립에 앞서 2020년부터 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광주본원, 제주센터가 같은 날 의미있는 첫발을 뒀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224㎡ 규모로 상담실과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광주 치유센터는 정신적·신체적 프로그램을 비롯해 1대 1 상담, 사회적 서비스 확대 및 방문 치유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

시는 5·18 뿐만 아니라 6·25와 여순사건, 부마항쟁 등 전국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치유, 회복돼 건강한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발전시킬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5·18유가족도 광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랐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5·18 상징성 및 광주시의 유지 의사 등을 고려해 2021년 건립지가 확정됐다. 5·18 사적지에 자리잡은 이유로,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과제도 많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하는데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해서 운영비 전액 국비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무늬만 국립', '반쪽 기관'이 된다. 지금처럼 시비를 충당하는 문제부터 즉각 개선돼야 한다. 행안부 산하 법인이다. 예산과 함께 부족한 인력 확충도 급하다. 광주시의 요청대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속제도 떠안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다.

청년칼럼

청년들이 제대로 좋아하는 것을 찾을 권리



오순지

무해로움 대표

요즘 MZ 세대의 2명 중 1명은 이직이나 직무변경을 고민한다고 한다. 또 진로변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 중 '자신의 행복'이 가장 많다(41.2%). 이것을 사회 문제로 보기도 하고, MZ 세대는 참을성이 없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MZ이자 7년째 스타트업에 운영 중인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이 제대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인생에 레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필자는 올해 창업 만 7년을 맞았다. 처음 전공을 살려 들어간 대기업은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 들어간 중견기업은 체제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하고 몇 년은 내 삶이 없어졌다. 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어떤 선택이 후회로 남느냐, 후회가 없느냐는 일의 성공과 실패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선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한다. 내가 선택한 결정은 실패해도 교훈이 되고 도전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입맛에 맞춰 그럴듯해 보이는 길을 가서 실패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그래서 퇴사할 때, 창업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도전보다는 항상 지금 쥐고 있는 안정적인 것을 놓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삶이 보장된 선택지보다 나은 삶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다들 그렇게 삶의 일부는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에 빠져들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해진다.

청년들은 지학(志學)과 이립(而立)의 나이를 지나 온다. 논어에서 지학(志學)은 '뜻 지(志)'이다. 공자는 학자니까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뜻을 두는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 삶의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나서야 이립(而立) '뜻을 세우는(立)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사실 논어에서 지학은 15살, 이립은 30살을 의미한다. 하지만 필자의 10대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력이 없었고, 지학은 스무 살이 넘어 겨우 시작돼서 20대 내내 지학의 단계를 겪고, 20대의 끝자락에 창업 이후 지금까지 이립의 단계이다. 그래서 지학과 이립은 시집이 아니라 구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학 이전에 이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10대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행운이라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 대

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어보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하나둘 어렵게 알게 됐다. 20대는 사회의 기준을 따르면서도 또 내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였다. 그때는 재수까지 해서 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전혀 늦지 않았다. 자기가 어디에 뜻을 두고 고민하는지는 20대를 몽땅 쏟아부어도 남은 인생을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 생각한다.

지학의 단계에선 내 마음을 쏟았지만, 막상 해보니 맞지 않는 길이 있고 우연히 시작했지만, 운명이라 여기고 좋아하는 일들도 생겼다. 크고 작은 판단 앞에서 정답도 찾고, 오답도 제거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 깨달으면 그때가 이립(而立)의 순간이다. 비단 창업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집단에 소속해 자신의 꿈을 향해 갈 때도 생각지도 못한 난해한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창업 이전의 삶에서 문제들은 정답이 확실해 보이는 것이 더 많았는데, 창업 이후에 맞게 되는 가치 판단의 문제들은 소설의 열린 결말처럼 여지가 많아진다.

그럼에도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제품과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분명할 때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다. 다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목적을 확실히 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학과 이립을 응원한다.

독자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도 112에 신고하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도 112에 신고하자. 건설현장의 주요 불법행위는 폭력, 갑질, 업무방해, 채용강요, 불법집회, 시위와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고센터(1577-8211)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노동자 안전문제,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 지연, 분양대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시공자는 보복행위가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도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나 단속에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제보가 절실하다.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발생 근절을 위해 국민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유심히 현장을 살펴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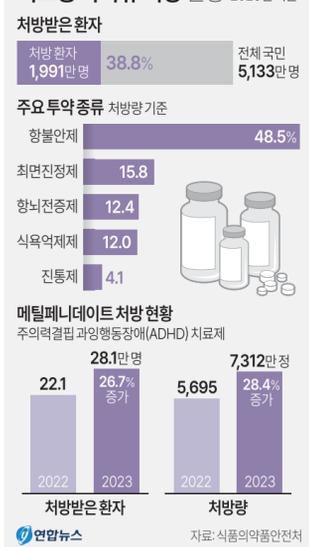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 환자 2천만명 육박...전년보다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환자가 2천만명에 육박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천911만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지난해 18억9천411만개로 역시 전년과 비교해 11% 늘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로는 50대가 418만명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242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지난해에는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가 28만633명으로 2022년 22만1천483명에 비해 28.7% 늘었고, 이에 따라 처방량도 2022년 5천665만3천정에서 지난해 7천312만5천정으로 2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지난해 모두 4만7천645곳으로 2019년 이래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2023년 기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1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70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